

마르크스를 소설로 읽는 즐거움

셀레브리아코바 지음 「소설 마르크스 - 프로메테우스」

김석희

소설가

사람다운 삶, 그 삶을 가능케 하는 사회의 꼴에 대한 논리와 그러한 논의를 실천으로 옮기기 위한 운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활발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그같은 논의와 운동의 한 줄기가 사회주의에 근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지난해에서 올해로 넘어오는 동안 마르크스주의를 지배이념으로 삼고 있는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이 차례로 개방과 개혁을 내세우면서 변화한 국면을 알고 있다.

이같은 현실을 두고 우리 정치권의 일각에서는 보수와 혁신의 이중구조로 우리의 의식구조를 고착화시키려 하며, 또 같은 맥락의 논자들 속에서는 마르크스주의의 종말을 선부르게 운운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최근의 세계사적 변화를 주도한 소련공산당 서기장은 한 논문에서, 그동안 사회주의 국가들이 겪은 개인숭배와 관료주의적 정체성은 스탈린체제 하에서 벗어난 왜곡과 오류의 산물이다, 때문에 사회주의는 오히려 마르크스로 되돌아가야 한다, 그럼으로써 문명의 진보와 인민의 집권을 향한 인간중심의 사회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후 30년에 걸쳐 완성된 3부작

이러한 국내외적 환경은 우리에게 마르크스에 대한 진전된 이해와 평가의 필요성을 안팎으로 부여한 셈이다. 다시 말하면, 마르크스주의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접근하든 아니면 이념적으로 접근하든, 지금은 무지나 편견에서 벗어나 참되고 열린 입장을 세워야 할 시점인 것이다. 그럼으로써만이 우리가 오늘날 겪고 있는 이념적 갈등 내지는 혼란도 갈피를 잡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필요조건은 갖추어졌지만, 마르크스를 만나고 이해하기 위한 충분조건은 별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게 또한 우리의 현실이다. 완전히 열려 있는 마당 안에서 그를 만나는 게 아직도 어려우며, 그를 만나는 경우에도 그를 이해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를 만나러 가는 길목 곳곳에는 갖가지 부비트랩이 매설되어 있으며, 전공학자들에게도 난해한 마르크스의 저작을 원전 그대로 읽으라는 것은 일반인에게는 아예 그를 알려고도 하지 말라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

「소설 마르크스-프로메테우스」는 아마 지금까지 나와 있는 도서형태의 저작물 가운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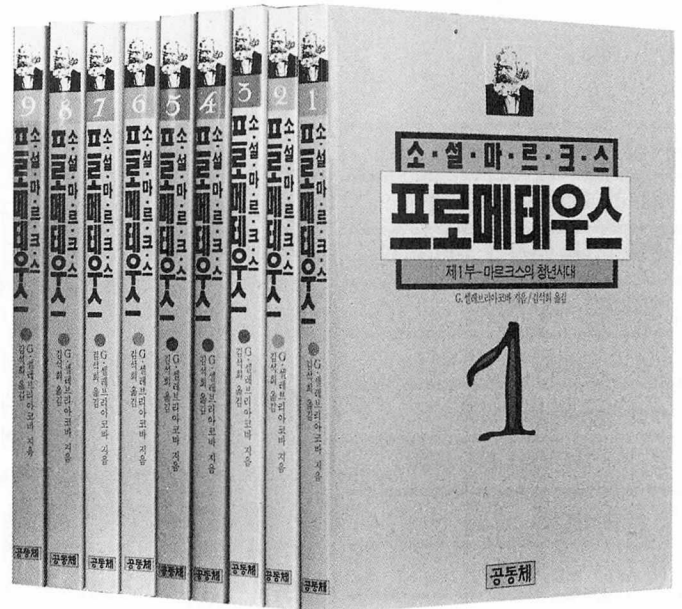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들을 가장 충분히 갖추고 있는 작품일 것이다.

이 책은 한마디로 말해서 마르크스에 관한 역사적-전기적 소설이다. '역사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까닭은 이 책이 마르크스의 생애를 다룬 전기이면서도, 동시에 그의 시대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 책은 '소설'이기 때문에 이론적 사상서나 역사서가 갖는 딱딱하고 건조한 분석과 기술보다는, 소설이라는 형식이 가질 수 있는 장치들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마르크스라는 한 인물의 생애와 그의 시대를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난해한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제시해주고 있다.

모두 9권으로 번역된 「소설 마르크스-프로메테우스」는 소련의 여류작가 갈리나 셀레브리아코바가 30여년에 걸쳐 완성한 3부작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지나칠 정도로 이데올로기적 엄숙주의에 빠져 있었으며, 마르크스는 그 함정 또는 굴레의 가장 큰 희생물이었다. 마르크스를 소설로 읽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희생물을 '복권'시키는 즐거움이 될 것이다.

제1부 「마르크스의 청년시대」는 예리한 지성과 풍부한 감수성을 지닌 마르크스가 연상의 여인 예니에 대한 사랑과 역사 및 세계에 대한 진리를 추구하고 고뇌하며 성장하는 26세까지; 제2부 「불을 훔치다」는 그후 마르크스가 엥겔스를 만나 우정을 나누며 과학적 사회주의, 즉 공산주의의 이론적 체계를 확립하고 만국의 노동자들에게 해방의 길을 제시하기까지의 활동과 당대의 역사적 배경; 제3부 「원숙기」는 유럽의 혁명운동이 파리로코빈의 형성과 패배로 이어지는 환경 속에서 마르크스가 인터내셔널을 창립하여 노동운동을 지도하는 한편, 궁핍과 박해가 끊이지 않는 온갖 어려움 속에서 「자본론」 집필에 매달리다 결국은 다 끝내지 못하고 사망하기까지.



이 소설은 비록 마르크스(와 엥겔스)를 중심축으로 삼아 전개되고 있지만, 작가가 이 작품 속에 담아내고 있는 것은 19세기 유럽의 혁명운동사이다. 이를 완벽하게 재현하기 위하여 작가는 소련 「마르크스-레닌주의 연구소」의 지원과 고증을 받은 방대한 자료와 증언을 적절히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녀 특유의 섬세한 문체와 뛰어난 상상력으로 역사 속의 사건들을 생생하게 되살려내고 있다.

작가가 창조한 '가공인물'도 등장

이 사건들은 서로 맞물리며 또 다른 사건들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창출된 다양한 사상과 이념의 고리들 속에서 우리는 자기 시대를 열심히 살았던 수많은 인물들과도 만나게 된다. 그들 중에는 바이틀링, 블랑키, 라살레, 프루동, 바쿠닌... 등등, 마르크스와 더불어 고뇌하고 협력했고, 서로 경쟁하고 결별했던 실존인물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작가는 문학적 상상력을 통하여 몇몇 가공인물들을 창조해냄으로써 이 소설을 보다 흥미진진하고 생동감있는 작품으로 만드는 데 성공하고 있다.

가령, 리용봉기에 참가한 뒤 투옥과 탈옥을 거치면서 혁명전사로 변신한 독일인 재봉공요한 슈토크와 그의 현신적인 프랑스인 아내 주느비에브, 영국의 리다이트운동을 거쳐 차티스트운동에 참가했다가 장렬한 최후를 맞는 존 노인, 슈토크의 아들이면서 나중에 파리로코빈의 전사로 성장하는 장 슈토크, 러시아 출신의 진보적 여성인 리자 모솔로바-그러나 이들은 작가의 편의에 의해 무작정 창조된 인물들이 아니라, 그 시대를 가장 전형적으로

살았던 각국 노동자들의 '대표단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들을 통하여, 즉 이들이 제공해주는 시점을 통하여 마르크스주의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던 유럽의 시대적 환경을 보다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해를 거친 뒤에야 우리는 비로소 마르크스주의의 진정한 세계로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인류해방의 불 훔친 프로메테우스

작가가 이 소설의 제목으로 사용한 '프로메테우스'는, 다 알고 있다시피,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영웅의 이름이다. 그는 제우스신에게 불을 훔쳐다가 인류에게 주었기 때문에 코카서스 산정의 거대한 바위에 묶인 채 날마다 독수리에게 심장을 쪼아먹히는 형벌을 받아야만 했다. 마르크스는 그의 학위논문 서문에서, 「프로메테우스는 철학사에서 가장 고귀한 성자이며 순교자이다」라고 쓰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프로메테우스를 인류해방의 화신으로 여기고 그러한 인물이 되고자 했던 젊은 시절의 마르크스를 엿볼 수 있으며, 실제로 마르크스는 후에 프로메테우스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변혁은 세계가 탈이데올로기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 말은 우리가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지나친 경계나 경도를 삼가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지나칠 정도로 엄숙주의에 빠져 있었으며, 마르크스는 그 함정 또는 굴레의 가장 큰 희생물이었다. 마르크스를 소설로 읽는 일이야말로, 어의적 의미에서 그리고 상징적 의미에서, 그 희생물에게 보답을 하는 셈이 될 것이다.